

지상파 · 위성DMB 아울러 토털솔루션 제공

글 | 김보민 엠큐브웍스 멀티미디어 단말 사업부 과장



2001년 일본 이동통신업계에 일대 혁명이 발생했다. 만년 3위 업체였던 J-폰(현 보다폰)이 당시 2위 업체인 KDDI를 제치고 업계 2위로 발돋움한 것. 이는 J-폰이 업계 최초로 카메라 모듈장착 휴대폰을 선보였기 때문. 멀티미디어 사진서비스 '사메일'이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다.

휴대폰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주고 받는 간단한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당시 젊은 층의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후 KDDI나 NTT도코모 같은 일본 내 경쟁사들과 한국·유럽 등 전세계 이동통신사들도 카메라 탑재 휴대폰을 앞다투어 내놓기 시작했고, 5년여가 지난 지금, 신규로 출시되는 거의 모든 휴대폰 단말기에는 기본 기능으로 카메라가 탑재되고 있다.

'사메일'의 경우에서처럼 모바일 멀티미디어가 성공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휴대폰과 같이 이동 중에도 쉽게 이용 가능한 멀티미디어 기기여야 하며, 둘째,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기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광대역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서비스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성능 좋은 무선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이 삼박자가 지원되어야 성공적인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모바일 단말기기 및 광대역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서비스들이 속속 선 보이고 있다. 이중 국내외적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국내의 'DMB', 유럽의 DVB-H와 같은 모바일 TV를 들 수 있다.

모바일 TV 서비스

최근 국내 모바일 멀티미디어 산업계와 방송·통신 업계 최대 화두는 역시 DMB이다. 우선 위성DMB의 경우, '지상파 재전송 불허'라는 암초를 만나긴 했지만 지난 5월 1일 첫 전파를 쏘아올린 후 10월 말 현재 25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확보됐다.

가입자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원 단말기의 경우에도 휴대폰 일체형, 스마트폰형, PMP-내비게이터 일체형, 차량용 등 다양한 컨버전스 형태의 단말기가 금년 말까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업계를 고무시키고 있다.

지상파DMB의 경우에도 지상파 TV사업자군 3개사와 비지상파 사업자군 3개사 등 총 6개사가 이미 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상태로 당장 지상파 DMB 정식서비스를 시작해도 무관한 상태에 있다. 최근 핫이슈였던 NIS 문제가 잘 마무리되어 올 12월이면 지상파 TV 사업자 3사는 본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차량용과 노트북용의 USB 타입 단말기가 출시된 상태로 3~4종의 차량용 단말기와 4~5종의 USB 타입의 단말기가 시판되고 있는 상황이다.

DMB와 같은 모바일 TV는 단지 국내에 한정된 이슈만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위성 DMB, 지상파 DMB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반해, DAB의 원조인 유럽에서는 'DVB-H'라는 이름의 모바일 TV 시범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미국식 디지털방송인 ATSC와 유럽방식인 DVB 규격을 포괄하고 이동수신까지 가능하게 한 자체표준 ISDB-T를 기반으로 휴대방송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내년 초부터 본 방송을 예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지상파 D-TV 규격인 VSB를 이동수신까지 확장시킨 'E-VSB'를 진행 중이다. 개

별 기업레벨의 기술규격이긴 하지만 퀄컴이나 매크로 미디어 같은 첨단 IT 그룹들도 미디어플로나 플래시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수신 서비스 표방 기술들을 개발하고 세물이에 나서는 등 파상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퀄컴의 경우 미디어플로용 베이스밴드 및 RF 칩을 개발완료 하고 올해 말부터 북미지역에서 시험서비스를 시작, 2006년 6월부터 상용화에 돌입하며 이를 위해 8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엠큐브웍스 솔루션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 멀티미디어 솔루션 회사인 엠큐브웍스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무선랜(WiFi) 단말기, DMB 단말을 위한 솔루션 및 스트리밍, 실시간 모바일 방송에 필요한 서버 솔루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엠큐브웍스는 위성 DMB의 표준 코덱인 H.264와 AAC+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DMB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말에서 멀티미디어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엠큐브웍스는 TU미디어에 위성DMB방송 송출을 위한 인코딩 시스템을 공급하였으며, 이노에이스의 차량용 단말 'IDC-1000', JAS의 'Hyon HN-3000'에 DMB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엠큐브웍스의 인코딩 시스템은 제한된 대역폭에서 최고의 음질과 화질을 보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안정적인 방송 시스템 운용을 위한 각종 장치를 갖추고 있다. **K**

The Best Partner for IT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